

2026. 03. 12. 14:12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또
당직입니다. 지겨워요. 특히 오늘은 이상하게 몸이 축축 처지고 있어
토요일 당직뿐만 아니라 오늘 근무도 너무 싫습니다. 정말 관성으로
하는 기분이에요.

이란과 미국/이스라엘의 싸움은 이제 2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쟁이 길어지며 조금 면역이 생긴 것처럼 움직이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제유가가 오르면 미국도 오르니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의 불안감이 점점 커지는 듯 합니다. 곧 네 마녀의
날도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좀 더 천천히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만
되네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문제가 완전히
끝날때 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니까요.

현재 제가 관심을 갖고 보는 회사는 FSLR 입니다. 일반적인 실리콘
태양광 패널이 아닌 CdTe 패널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미국의 지형에서는 가장 싸고 빠르게 전력 생산량을 늘릴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온이 높고
면적이 넓은 국가에 유리한 패널입니다.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단 하나의 회사밖에 만들지 않으니 아웃사이드 패널이기도 하고요.
트럼프가 기름과 석탄을 좋아한다고 해도 상황이 나빠지거나
민주당 우세가 시작되면 이 회사를 무시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로 신재생 에너지 시대의 투자대상 목록에 추가했는데
잘 내리지를 않네요. 전쟁때문인지 다른 이유인지 정찰용 5주 이외에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항상 생기니 꼭 참고
기다리려고요. 어차피 살 것은 많고 돈은 없으니까요. 간신히
\$10,000 정도 투자대기 자금을 만들었으니 알뜰하게 투자해야

